

사회

# 30주년 5·18 광주 외엔 '썰렁'

## 서울·강원·대구·목포·나주 등 12개 지역 예산 집행 늦어 차질

### 인천·순천 등 사비 털어 행사준비도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행사 지역행사위원회(이하 지역행사위)들이 예산을 제때 지원받지 못해 5·18 전국화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행사위에서는 사비를 털어 행사를 준비하는가 하면, 행사를 축소해 치르기로 하는 등 범국민적 시민 주도형 추모행사로 치르려는 30주년 기념행사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각 지역행사위 지원 예산을 지난해 3천만원에서 올해는 7천만원(추정)으로 배 이상 늘렸으나, 예산 배정이 늦어지면서 지역별 행사위의 사업 계획도 늦어지는 등 손발이 맞지 않

아 전국 행사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강원·경기·충북·대구 및 경북·전북·대전 및 충남 등 전국 12개 지역 30주년 지역행사위는 다음달 10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청소년 음악회·백일장·시민 문화제·사진전·전야제·기념식·성지순례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30주년 기념행사위와 지역행사위 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제 때 집행되지 않아 5·18 전국화 사업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과 순천지역행사위는 다음달 15일~18일 광주 성지순례와 5·18

사건전, 5·18 백일장, 기념식 등의 행사를 치를 예정인데, 아직까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사비를 털어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 나주지역행사위는 행사 계획조차 잡지 않았다.

서울지역행사위는 다음달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광장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5·18 전사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광장을 사용하려면 최소 한 달 전에 사용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지원예산과 집행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행사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강원지역행사위도 다음달 14일~18일까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역스포 광장에서 거리사진전·개막식·청소년 OX 퀴즈 등 다양한 행사를 치르는데, 예산지원이 늦어지면서 세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역행사위 관계자는 "매년 행사 때마다 예산 집행이 늦어져 행사 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는 예산이 확보돼야 정확한 행사 계획을 세울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행사위 관계자는 "예산이 조기집행돼야 행사를 차질없이 치르는데, 30주년 기념행사위에서 각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6일 실무회의를 통해 대략적인 사업과 예산이 확정된 만큼 조만간 각 지역행사위로부터 세부 행사보조금 신청서를 받아 광주지방법보충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 예산을 지원받으면 곧바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보도방 뇌물' 의혹 경찰관 유흥업소서 돈 받아 영장

### 광주지검 수사 확대

검찰이 보도방 업무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유흥업소 업무로부터도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보도방 뇌물 경찰'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 철)는 18일 유흥업소 업무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왔던 혐의(뇌물수수)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이모(47)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지난해 초부터 광주시 서구 모 유흥업소 업무 주 A씨로부터 매회 10만~50만원의 현금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900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위는 또 A씨가 지난 2008년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되자 "사건을 봐주겠다"며 현금 1천200만원을 받은 뒤 A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돈을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경위 측은 "A씨와는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로, A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빌려준 뒤 되돌려받았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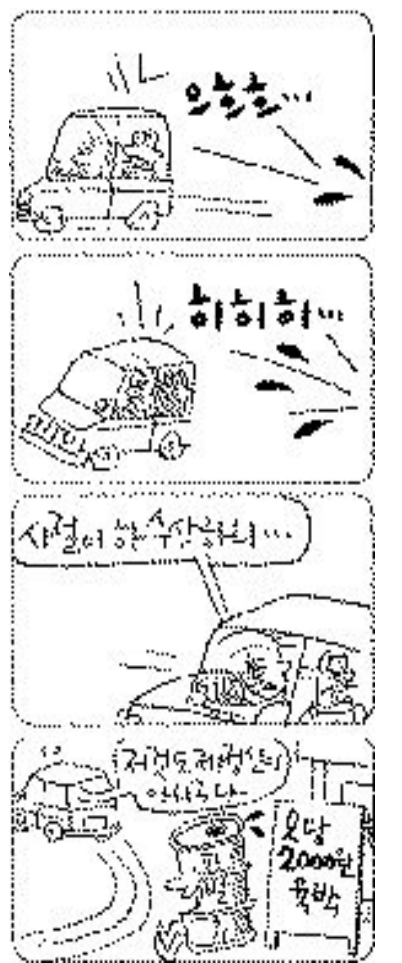
검찰은 이달 초 보도방 업무주인 강모(40)씨로부터 "현재 경찰관 4명이 매 회 돈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경위가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강씨가 돈을 줬다고 진술한 나머지 3명의 경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어 뇌물 수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말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징역 200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어 지난 2월에도 보도방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금품 상납' 의혹을 제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나원침 (8089) 김중두



70대 신병비판 분신 자살

18일 낮 12시15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사는 김모(71)씨가 자신의 집 2층 옥상에서 몸을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해 숨졌다. 옥상에서는 라이터와 휘발성 물질이 담긴 페트병이 발견됐다. 김씨는 이날 옥상에서 부인과 대화 중 "경찰은 숨진 김씨가 3년 전부터 폐질환을 앓아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자신의 신병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이웃에 또 가맹점-치킨집 주인 소란

○자신의 치킨 가게에서 700m 떨어진 곳에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내준데 격분한 치킨 가게 주인이 분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8)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 모 치킨 분사 정문 앞에 자신이 몰고 온 승용차를 주차한 뒤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웠다.

○김씨는 자신의 치킨 가게 인근에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이 생기면서 수익이 떨어질지 화가나 분사에 찾아가 항의했는데, 경찰에서 "가까운 곳에 새 가맹점이 개설해 화가 났다"고 진술.

/이종형기자 golee@

## 남구 편의점 연쇄 강도 세탁 꼬리표 흘려 달미

농기구를 들고 휴일 아침만 골라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3번째 범행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최초 범행이 일어난 지 석달 만에 또 다시 범행에 나선 이 남성은 도주 과정에서 세탁소 이름이 적힌 외투를 흘리는 바람에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18일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김모(26·광주시 남구 봉선동)씨에 대해 특가법상 상습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심모(여·20)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25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이날 범행과정에서 한때 흉기를 빼앗고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도주방향을 명확히 기억한 여종업원 심씨의 신고로 출동, 인근 아파트에 버리고 간 김씨의 외투 안에 적힌 세탁소 상호를 단서로 추적을 벌인 끝에 주거지 인근을 배회중이던 김씨를 붙잡는데 성공했다. /김형호기자 khh@



### 중국 노인들 총장로 퍼레이드

올해 중국 노인 관광객 2만3천여명이 광주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18일 1천100여명이 광주를 찾아 동구 총장로 등에서 전통의상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중국 노인 관광단 광주 방문은 지난 2월 광주시와 중국노인관광협회체가 '만명노인 연(演) 광주활동'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지법, 딱한 절도범 양형조사로 벌금형 선고

법원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20대 절도범의 '딱한 사정'이 담긴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를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18일 병원에서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김

모(2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기소 당시 동종 범죄(절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어서 실형이 예상됐지만 재판부가 김씨의 '딱한 사정'을 담은 '양형조사'를 적극 반영해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

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고아로 자란 불우한 환경 ▲추위를 피하고자 범행장소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은 양형조사를 토대로 기소 당시 징역형 구형 의견을 벌금형으로 변경했고, 재판부 역시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 "폭우로 망친 밭떼기 농사 손해는 상인이 감수해야"

### 광주지법 판결

광주에 사는 정모(여·53)씨는 지난해 7월 1일 주모(55)씨와 일명 '밭떼기' 계약을 했다. 큰 낭패를 봤다. 정씨가 '밭떼기' 한 수박밭 8만5천여㎡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속대밭'으로 변한 것이다.

당시 정씨는 전북 고창에서 주씨가 경작하던 수박을 3억2천만 원에 사기로 한 터라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할 형편이었다. 정씨는 주씨에게 계약금 1억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2천만원만 받게 됐다.

정씨는 계약 뒤 달 후 "나머지 계약금 8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이마저도 여의지 않았다. '밭떼기'의 경우 이익이나 손해 모두를 매수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양영희 판

사는 18일 정씨가 "밭떼기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주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밭떼기는 상황변화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상인과 농민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특성이 있다"며 "기후상황에 따른 손실은 당연히 고려해야 할 요소로, 상인이 금전적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천재지변 등 매매 당사자들의 책임 없이 물품이 훼손된 경우 계약도 무효화돼 주고받은 것을 반환해야 한다'는 종전 판례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밭떼기"는 농민과 상인이 밭에서 나는 작물을 수확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면적이나 수량 단위로 사고 파는 것으로, 포전거래(圃田去來)라고도 불린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www.hanbitgo.com

개강 ▶ 5월 3일 (휴일·공휴일 제외)

압도적 1위 시설 합격을 강사진

#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북구청앞 062-234-0234)

79㎡ 공무원 종합이론반 / 소방직 전문반

74㎡ 합격문제풀이반 / 서울시 9급 문제풀이반 모집

명품단체 / 전문강사 / 합격률 / 수석합격자 배출

수석합격자 배출